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한계: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이관률
충남연구원

도묘연
영남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천안·아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천안·아산지역 비영리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형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특정 이슈와 사업을 위해서다. 둘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의 효과 중 사업성과 및 영향력 제고, 그리고 성공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의 자원과 인적역량의 부족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단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갖는 비용 절감과 자원 확보 등의 편익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이 특정 이슈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조직 자체

* 이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201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2015. 8. 20)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주제어: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요인, 효과, 한계]

I. 문제제기

제3섹터로 대변되는 비영리 민간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대한 논의는 현대 정치·사회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주목받는 화두이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서구 사회의 NPO(Non-Government Organization), VO (Voluntary Organization), 사회적 경제(Economie Sociale) 기관들만큼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한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초기 과정에서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권위적인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운동의 중추 세력을 담당하였다(도묘연 외, 2010).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 혹은 전달자로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였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3섹터로서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대안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Berman, 1997; Smith, 1997; Savara, 1999). 즉 NGO와 지역사회 다른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동시에 거버넌스를 촉진시킴으로써, 참여적·분권적 조종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능력 증대와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입장에서 네트워크 구축은 자원의 공유와 시스템적 상호작용의 결과, 암묵적 지식 및 신뢰(tacit knowledge and trust) 형성과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해 그들 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Mowery & Rosenberg, 1989; Preissl & Solimene, 2003).

이처럼 네트워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모델을 수용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고, 최근에서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른 행위자들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주로 거버넌스의 조력자 혹은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진정한 거버넌스는 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의 정책 혹은 공동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참여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들의 자치적 능력과 참여를 매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의 요인에 대한 내용적 분석이 부족하다. 즉 특정한 정책영역을 사례로 하여 네트워크 구축의 현황을 제시하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혹은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기법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당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의 문제점을 규명했다면, 내용적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와 방해하는 한계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천안·아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네트워크가 왜 형성되는지?, 네트워크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는 한계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아산지역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실무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수행된다. 비영리 민간단체 실무자 대상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는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현장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둘째, 네트워크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동시에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라는 흐름 속에서도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던지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II. 이론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네트워크의 의의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시장의 삼각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영리조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Ohanyan, A., 201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관점과 표현이 다소 상이하였을 뿐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른 주체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변화는 특정 단체에게 기회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변화는 자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체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Yanacopulos, H., 2005). 한편 특정 단체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활동양식을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원동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Pfeffer, 1997). 즉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은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단체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된다(Faulkner, 1995). 그렇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특정 단체의 생존력을 제고하고, 단체의 권한과 영향력을 위해서는 외부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자원을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환경변화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균등해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저성장은 자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고, 이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정보의 부족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Pfeffer & Salancik, 1978).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Yanacopulos, H., 2005).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간부와 대표, 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는 특정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외국에 있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Egan, 1995). 간혹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가치와 이념이 공유되거나 일시적 네트워크에 비해서 더 큰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거대한 가치와 공동의 의무를 창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

면 자원을 공유하게 되고, 참여집단의 전문화로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과 영향력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Ohanyan, A., 2012).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 제공, 핵심 단체와 통로 확보, 핵심 단체와 다른 단체의 전략 파악, 그리고 핵심 단체와 공통적 가치 형성 등의 이점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H. Taniguchi(2013)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신뢰에 기반을 두게 되는데, 이때 개인적 신뢰보다는 집단적 혹은 지역적 신뢰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적 신뢰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반면, 집단적 혹은 지역적 신뢰는 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주요 활동가의 개인적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일시적 네트워크 혹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한계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혹은 비정책적 활동이 제1섹터, 2섹터를 포함해 제3섹터 내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단독 활동에 비해 성과가 높을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권익대변자적 활동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시민, 언론, 다른 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원 활동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를 위임하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혹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활동은 1회적인 형태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는 네트워크 구축의 이점을 향유하게 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흔히 네트워크는 결절(node)과 결절의 연계 고리로, 자주적이면서 독립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한 국면의 연계(linkage)와는 구별되며, 단체 활동의 목적 달성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된 다양한 주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매개로 상호보완적 자원을 교류하는 관계적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조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Lungeani A. & N. S. Contractor,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는 공동 노력, 공동 자원 및 공동 의사결정, 위협의 공유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물이나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축된다(Cuo & Acar, 2005). 이 점은 네트워크 구축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발하면서 높은 자율성과 이윤추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학, 2007).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참여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한다(Gray, 1996). 이러한 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소규모 단체인 경우, 해당 조직의 활성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G. D. Saxton & L. Wang, 2013). 그러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참여 주체들은 새로운 조직의 행동통제를 따라야 하고,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인적 자원, 자본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Yanacopoulos, H., 2005), 이것은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네트워크 구축이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상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배타성이 조직화되지 않는 일반 시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Pierre & Peters, 1998; Papadopoulos, 2003; 도묘연 외, 2012). 이러한 배타성의 맥락에서 특정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Berman, 1997).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정부가 특정한 NGO와 협력을 지속할 경우, 정부 지원이 집중화되어 NGO 간 자원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박치성, 2006).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로 인해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이 퇴색될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공선을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대하여,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의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전제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는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영향력을 어떻게 더 극대화 할 것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수렴이 된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이유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과 시스템적 상호의존이론(systemic interac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은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조직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진다.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조직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된다(Pfeffer & Salancik, 1978; 김승완, 2011: 282 재인용).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활동은 자원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직의 선택적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입장에서 네트워크 구축은 희소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단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원을 특정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과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조직의 부족한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요인은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예산의 절감과 그에 따른 조직 활동의 극대화로 대변된다. 즉 인프라, 인력, 재원 등의 공동 활용을 조직의 활동역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적 자원으로 재원의 부족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도묘연, 2007; 정상호, 2008), 또한 물적 자원의 부족이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한국의 현실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구축은 사업의 지속성, 조직운용, 활동성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공청회, 입법청원, 정부위원회 참여 등의 제도적 성과와 집회,

사회, 기자회견 등의 비제도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완, 2011).

둘째,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은 암묵적 지식과 신뢰(tacit knowledge and trust)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정보 및 지식의 습득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조직의 전략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암묵적 지식은 특정 조직의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정 조직 안에 제한되어 있다(Bergman & Feser, 1999).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정보의 순환 고리와 지식의 확산을 유도하지만, 네트워크 외부의 주체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은 암묵적 지식의 상호작용을 제고하는 환경을 창출하게 하여 개별 조직의 정보와 지식 습득에 기여하게 한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 및 비정책적 활동에서 네트워크는 암묵적 지식의 공유와 신뢰감 형성을 통해 조직의 부족한 정보, 지식, 기술 등을 보완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장점을 가진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커지게 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간 신뢰적 관계를 통해 정보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Yanacopoulos, H., 2005). 즉 특정 이슈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일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그에 따른 조직성과의 확대에 대변될 수 있다. 즉 암묵적 지식과 신뢰의 확대가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조직 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수반되는 유형·무형의 비용을 의미한다(Jones, 1987).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간 대면접촉에 기초한 협력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계는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호관계를 손쉽게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입장에서 네트워크의 구축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장치인 동시에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을 연결시키는 연결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배진수·강성호, 2009). 그 결과 주어진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활동의 효율성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Mowery & Rosenberg, 1989; Preissl & Solimene,

2003). 나아가 만약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현재 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래 조직 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은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실제 네트워크의 효과와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서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은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연구가 거버넌스적 관점,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유형 단체(특히 영리단체)와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국제적 네트워크 관점으로 구분된다. 외국의 경우도,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시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 관점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Ohanyan, A., 2012).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아직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전 학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더욱이 외국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른 유형 단체와 네트워크,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한국의 주요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의 연구

경향은 크게 정책네트워크 모델, 거버넌스 모델로 대변된다(김영중 · 이재호, 2002; 정정화, 2003; 최병대 · 김상구, 2004; 배웅환, 2004; 장인봉 · 고종욱, 2004; 유재원 · 홍성만, 2005; 박재창 2007; 정순관 · 하정봉 · 길종백, 2008). 최근에서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강창현, 2002; 박치성, 2006; 한진이, 2011; 도묘연 · 이관률, 2012; 김승완, 2012).

우선 정책네트워크 모델을 수용한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면서, 정부, 기업, 공공기관, 다른 사회단체 등의 정책행위자들과의 협력과 갈등의 맥락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들은 환경, 보건, 과학기술 등 특정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 파트너십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효율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구축의 전제조건이 무엇이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은 지역사회의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과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하였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이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수평적인 협치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Berman, 1997). 특히 환경,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특정한 정책영역 혹은 특정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기업, 공공기관, 다른 사회단체들의 협력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축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모델의 기존 연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공공기관, 의회,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정책

행위자 혹은 거버넌스의 조력자, 촉진자, 유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거버넌스를 단순히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의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의 차원에서 주민이 공공문제 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거버넌스와 정책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민들의 자치적 능력과 참여를 매개하는 중요한 주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연구에서 주변자로 다루어졌던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적 분석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위상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단순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1섹터, 2섹터, 3섹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도입한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규모, 밀도 및 중심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위네트워크 및 핵심네트워크의 확산 혹은 약화 정도 등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확대 혹은 약화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포착하였다면, 그 원인을 해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 혹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도출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 요인,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는 이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발전가능성을 규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요인 혹은 제약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의 규범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Ⅲ.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한계

1. 분석틀 및 자료수집

1) 분석틀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기존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두 개의 이론에서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네트워크의 형성요인 중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으로,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네트워크의 효과로 재분류하여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자 한다. 우선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질적·인적 자원의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과는 예산절감, 조직활동의 활성화, 조직역량의 제고 등이다. 한편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특정한 이슈 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암묵적 지식과 신뢰를 공유한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과는 활동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 확대, 새로운 기회의 제공 등이다.

〈표 1〉 분석틀의 설정

| 구분 | 자원의존이론 |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
|-------------|-------------------------------|--|
| 네트워크의 형성 | 환경변화의 대응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 | 특정한 이슈 혹은 사업 암묵적 지식과 신뢰 공유 |
| 네트워크의 효과 | 예산절감 조직활동의 활성화 조직역량의 제고 | 활동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 확대 새로운 기회의 제공 |
|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 시간, 인적자원, 자본의 부담 | 새로운 통제의 등장 |

한편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Yanacopulos(2005)에 의하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통제 양식의 등장으로 인해 네트워크 참여단체가 활동상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로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단체가 내부의 한정적인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Yanacopulos가 주장한 새로운 통제 양식의 등장은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에서, 그리고 한정적인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은 자원의존이론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조사지역과 대상은 천안·아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이러한 조사지역과 대상의 선정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충남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의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는 2007-2008년에 비해 2009-2010년 들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행위자 수가 정책적 및 비정책 활동에서 각각 6개와 26개(2007-2008년 각각 5개와 16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회적인 협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핵심네트워크가 정책적 활동에서 1개와 비정책적 활동에서 2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도묘연·이관률, 2012).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네트워크 형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비영리민간단체 간 핵심 네트워크는 총 5개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핵심네트워크에는 천안KYC -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천안YWCA - 천안아산경실련이, 두 번째 핵심네트워크에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 전화가, 세 번째 핵심네트워크에는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여성의전화 - 천안여성회가, 네 번째 핵심네트워크에는 천안YMCA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 핵심네트워크에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아산시민모임 - 아산YMCA가 포함되었다(이관률 · 도묘연,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 아산지역 7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천안여성회(2008년 설립), 미래를 여는 아이들(2003년 설립),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1998년 설립),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설립), 천안 YMCA(1993년 설립), 천안 KYC(1999년 설립), 천안아산경실련(2007년 설립)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와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하는 이유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7개 비영리 민간단체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천안과 아산을 지역적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지역 자치, 복지, 교육 및 학술,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적 및 비정책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7개 단체의 네트워크가 지역적으로 천안, 아산의 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춘 단체의 상근자 대상의 인터뷰 조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천안 · 아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2014년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그리고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는 조직의 운영, 관리, 활동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근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 지속적 근무를 한 상근자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에 응한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자는 모두 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해당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 네트워크의 주요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제약요인 등이었다.

2.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요인과 한계

1) 네트워크의 형성요인

앞서 이론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자원의존이론 측면에서 보면, 천안·아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공동후원과 시민사회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에서 보면, 주요 이슈 혹은 특정 사업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나 일상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자원의존이론이 아닌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즉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주요 지역이슈 혹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으로 상시적 네트워크인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실무자는 “지역에 특정의 현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에게 공문을 발송해 네트워크(예: 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연초에 결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지역에 “천안 NGO센터”가 2008년 설립되어 각종 물적 자원과 공간대여, 그리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대부분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센터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천안비영리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자원의존이론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영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한계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이론논의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어떻게 영리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영리단체 혹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내부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지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하고, 현재의 네트워크는 형식적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네트워크의 효과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의 효과에 있어서도 자원의존이론 측면보다는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성과 및 영향력 제고, 그리고 성공가능성 제고를 유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 상호간의 이해 확대, 상시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새로운 기회 확대 등을 주요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천안·아산 비

영리단체는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공통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만약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우리 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했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이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학습효과로 역량제고, 위험성 축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확대와 같은 자원의존이론 관점의 편익에 대해서는 큰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 축소, 지역사회 관심 확대 등은 인터뷰 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개의 단체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부인력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때 조직 자체의 발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조직 내부의 역량제고와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다수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향후 네트워크 보다는 자체 사업에 치중을 하겠다.”라는 견해를 나타냈고, 네트워크로 인해 단체의 내부역량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는 한 단체는 “당분간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까지 응답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의 효과로 사업성과 및 영향력 제고, 성공가능성 제고에 비중을 두는 것은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활동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발전과 역량 강화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3)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와 효과는 모두 시스

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의존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부의 인적역량과 재정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을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 시간과 비용 발생, 참여단체 간의 갈등 발생 및 우선 순위화 곤란 등이 주요 한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요인은 주로 자원의존이론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 보다는 자원의존이론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예컨대 조사과정에서 한 인터뷰 대상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이 부족해 타 단체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내부역량이 부족해 협력이 곤란하다.”라는 모순적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에서는 “내부의 인적자원이 부족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고, 네트워크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실무자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매우 한정적이지만 몇 가지가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념 및 활동방식 등의 인식적 편견, 사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초래 등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통제의 등장이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관점에서 제약요인이지만,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직 한국사회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이념 및 활동방식의 인식적 편견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초래는 네트워크를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국사회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업 중심의 일시적 네트워크가 지적된 것이다. 이것은 비영

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가 주요 이슈 및 특정사업이라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즉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가 특정 이슈와 사업인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약요인인 것이다. 이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가 특정 이슈 및 사업에 의해 일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만, 이로 인해 가치 공유 및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지 못하여 지속적 네트워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네트워크의 효과가 제대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시적 네트워크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제의 등장이나 아닌 내부의 자원 동원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소규모 단체가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 본원적 이유와 모순되는 것이다. 한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와 효과가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한다면,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또한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서 유추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모순구조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의미하는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2〉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형성의 한계

| 구분 | | 주요내용 | 중요도 |
|----------------|-------------|--------------------|-----|
| 네트워크의 형성 | 자원의존이론 | 공동후원 | △ |
| | | 시민사회의 높은 요구 | |
| |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 주요 지역이슈/특정사업 | ○ |
| | | 일상적 교류네트워크 | △ |
| 네트워크의 효과 | 자원의존이론 | 학습효과로 역량제고 | △ |
| | | 위험성 축소 | |
| | | 지역사회의 관심 확대 | |
| |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 사업성과 및 영향력 제고 | ○ |
| | | 성공가능성 제고 | ○ |
| | | 상호간 이해 확대 | |
| | | 상시적 거버넌스 구축 | |
| | | 새로운 기회 확대 | |
|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 자원의존이론 | 인적역량 부족 | ○ |
| | | 재정 부족 | ○ |
| | | 핵심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 | |
| | | 준비와 교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 |
| | | 갈등 발생 및 우선 순위화 곤란 | |
| |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 인식적 편견(이념, 활동방식 등) | △ |
| | | 사업 중심 네트워크 | △ |
| | | 의도되지 않은 결과 초래 | |
| | | 성과의 독식 및 무임승차 | |

주: 중요도 중 ○는 높음, △는 보통을 의미함.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특정한 지역이슈 혹은 사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효과는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권한 및 영향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 이유와 네트워크의 효과는 모두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이슈와 사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내부자원이 한정적이어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이유와 효과가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제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는 자원의존이론에 기반을 두는 모순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바라보는 네트워크의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이슈 및 특정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같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1회적인 네트워크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요인으로 사업 중심의 일시적인 네트워크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환경변화에 대한 자원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생존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반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외국의 경우도 일시적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참여단체의 가치와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내부의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 네트워크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외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비공식적·개인적 신뢰가 공식적·사회적 신뢰로 확대되는 반면,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는 비공식적·개인적 신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요인으로서는 내부역량, 자원부족과 같은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부족한 내부자원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내부자원이 부족하여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내부적 역량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자체적인 생존력을 강화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간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연구에서 네트워크를 주목했던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과는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향유하는 편익 또한 모두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특정이슈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조직의 예산절감, 조직활동의 활성화, 조직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조직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자체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권한 및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를 단순히 성과 제고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한계점이 있다.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자원과 정보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이점을 보다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아산 비영리단체 네트워크가 현재의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탈피해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 전환은 천안·아산 비영

리단체가 내부의 자원이 부족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다는 모순적 문제를 탈피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조직의 역량 감소가 아닌 조직의 역량 제고 및 조직의 발전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표 3〉 분석결과의 종합

| 구분 | 자원의존이론 |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
|-------------|------------------|------------------------------|
| 네트워크의 형성 | — | 특정한 이슈 혹은 사업 |
| 네트워크의 효과 | — | 활동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 확대 |
|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 | 시간, 인적자원, 자본의 부담 | — |

I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천안·아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천안·아산지역 비영리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효과, 그리고 형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된 이유는 특정 이슈와 사업을 위해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다른 단체의 자원 활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는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의 효과 중 사업성과 및 영향력 제고, 그리고 성공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직발전에 미치는 네트워크의 효과에는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의 효과에서도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의 자원과 인적역량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효과의 주된 이유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서 바라본 것과 사뭇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주요 이슈와 사업 중심의 일시적 네트워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개인적·비공식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성과지향적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한정적 시각에서 기인한다. 네트워크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생하는 효과가 조직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조직의 권한 및 영향력 제고 등이다. 그런데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갖는 비용 절감과 자원 확보와 같은 이점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특정 이슈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조직 자체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네트워크는 자원의존이론과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의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형성의 본원적 이유는 자원의존이론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은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인 동시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안·아산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인 자원의존이론보다는 부수적인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론에만 근거에 네트워크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

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발전과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 다른 단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다만 특정 문제 해결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안·아산 비영리단체가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규범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 그리고 특정 사례로 한 네트워크 분석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는 분명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를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와 다른 유형 단체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유형(예컨대 영리조직 혹은 정부조직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유형별 네트워크의 효과와 네트워크 형성의 한계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네트워크 연구는 계량적 분석기법과 정성적 분석기법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혼합적 연구방법론이 사용되어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313-332.
- 김승완. (2011). 자원으로써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9(4): 279-304.
- _____. (2012).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263-290.
- 김영종·이재호. (2002). 환경 NGO와 지방정부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6(3): 165-189.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도묘연. (2007).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과 재정후원의 관계: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15(3): 117-143.
- 도묘연 · 이관률. (2010).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협력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한국행정논집」, 22(3): 821-844.
- _____. (2012).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행정논집」, 24(4): 803-829.
- 박치창. (2007).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221-250.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0(1): 353-376.
- 배진수 · 강성호. (2009). 초국적 NGO 네트워크의 현황과 활동사례 연구. 「OUGHTOPIA」, 24(1): 33-72.
- 유재원 · 홍성만. (2005). 정부의 시대에 꽃핀 Multi-level Governance: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0): 171-195.
- 이관률 · 도묘연. (2012).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135-159.
- 장인봉 · 고종욱. (2004).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요인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87-110.
- 정상호. (2008). 한국 시민단체(NGO)의 재정위기 현황과 해소 방안. 「동서연구」, 20(2): 249-276.
- 정순관 · 하정봉 · 길종백. (2008).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115-134.
- 정정화. (2003). 정부와 NGO의 관계모형. 「한국행정논집」, 15(3): 621-642.
- 최병대 · 김상구. (2004).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217-241.
- 한진이 · 윤순진. (20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 81-108.
- Bergman, E. M., & Feser, E. J.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The Web Book of Regional Science.

<http://www.rri.wvu.edu/WebBook/Bergman-Feser/contents.htm>.

- Berman, S. (1997). Civil Society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62-574.
- Cuo, C., & Acar, M. (2005). Understanding Collaboration Among Nonporofit Organizations: Combining Resource Dependency, Institutional and Network Perspectiv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4(3): 340-341.
- Egan, C. (1995). *Creating organizational advantage*.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Faulkner, D. (1995).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co-operating to compete*.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 Fowler, A. (1997). *Striking a balanc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 Gray, B. (1996). Cross-sectional partners: collaborative alliances amongst business, government, and communities. In C. Huxham (ed.), *Creating collaborative advantage*. London: Sage Publications, 57-79.
- Jones, G. R. (1987). Organizational-Client Transactions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Struct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0(2): 197-218.
- Lungeau, A., & Contractor, N. S. (2015). The Effects of Diversity and Network Ties on Innovations: The Emergence of a New Scientific Fiel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9(5): 548-564.
- Mowery, D., & Rosenberg, N. (1989). *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MA: Cambridge.
- Ohanyan, A. (2012). Network Institutionalism and NGO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3: 366-389.
- Peters, B. G., & Pierre, J.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2): 225-242.
- Pfeffer, J. (1997). *New directions for organization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feffer, J., & Salancik, G. R.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ese dependency perspective*.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1984).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externally

- controlled organizations. In D. S. Pugh (ed.), *Organizational theory*. New York: Penguin: 130-161.
- Preissl, B., & Solimene, L. (2003). *The Dynamics of Clusters and Innovation*. N.Y.: Physica- Verlag Heideberg.
- Savara, J. H. (1999). Politics-Administration/ Officials-Citizens: Exploring Linkages in Community Governance.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xis*, 21(3): 1-42.
- Saxton, G. D., & Wang, L. (2013). The Social Network Effect: The Determinants of Giving through Social Medi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5): 850-868.
- Smith, S. R. (1997). Partnership, Community Building and Local Governments. *National Civic Review*, 86(2): 167-174.
- Taniguchi, H. (2013).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Trust on Volunteering in Japa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1): 127-147.
- Yanacopulos, H. (2005). The Strategies that bind: NGO coalitions and their influence. *Global Networks*, 5(1): 93-110.



**The Determinant and Limitation of NGO Network
in Cheonan and Asan Region**

Lee, Kwan-Ryul
Chungnam Institute, Korea

Do, Myo-Yuen
Yeungnam University, Korea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on evaluating limitation of creating network and effectiveness and factors of NGO network by referring case of NGO in Cheonan and Asan region. For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mployee of NGO in Cheonan and Asan region regarding reason why network is cre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reation and why network can not be created. This research evaluated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NGO network and limitation of creation in perspective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systemic interaction theory. Here is summary of the research. First, the main reason why NGO of Cheonan and Asan region creates network is for certain issue and business. Second, Cheonan and Asan region NGO focuses on performance, consideration of influence and possibility of success among effects of network. Third, the reason why NGO in Cheonan and Asan region can not create network is that they lack of internal resource and human resource.

In summary, Cheonan and Asan region NGO only focuses on maximization of performance and does not actively utilize resources of other organization through network. Therefore, it does not utilize benefits generated from network, such as cost reduction and securing resource. Also, creating network is effective on conducting certain issue and business, it shows the problem that it can no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ir own network and vitalization. In this point, the change of perspective that how Cheonan and Asan region NGO sees network must occur. The importance of network in perspective of foundational level regarding why network must be created, must be recognized and expand the network.

[Key Words: Non-Government Organization, Network, Determinant, Influence, Limitation]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5일 / 심사일: 2015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제1저자: 이관륵(Kwan-Ryul Lee)은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지역경제, 지역계획 및 정책 등이다. 최근 연구 논문으로는 “청양 구기자산업의 가치사슬 분석(2015)”, “영천한약재시장의 형성요인과 유통구조(2014)”,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2012)” 등이 있다. (e-mail: krlee@cdi.re.kr)

교신저자: 도묘연(Myo-Yuen Do)은 영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S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과정, 시민사회, NGO/NPO이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2015)”,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 분석(2012)” 등이 있다. (e-mail: politician21@ynu.ac.kr).